

태고종 총무원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봉행했다. 사진은 태고종 어산어장스님들이 천수바라를 시연하는 모습.



태고종 방중단은 만수선사에서 향수해례 의식을 봉행하고, 선조사들을 예경했다.



불자들에게 청수를 뿌리고 있는 상진 스님.



불교 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태고보우 구법처 '천호암' 韓中교류 성지 '일신'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 선사 제19대손 석옥 청공 선사에서 법을 인가 받은 중국 후저우시 천호암이 한중불교교류 성지로 일신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계룡 스님)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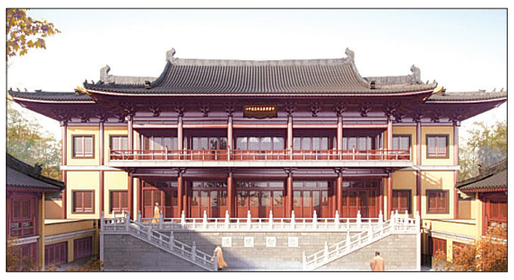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 불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중국불교 측에서는 절강성불교협회 부회장 자만 스님,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룡 스님, 천호암 부주지 자성 스님 등이 함께 했다.

후저우 하모산에 위치한 천호암은 석옥 청공 선사가 은둔하며 수행하던 곳으로, 1347년 태고 보우 국사가 이곳을 찾아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구했다. '이웅존자 시원증행장'에 따르면 태고 보우는 자신의 '태고암가'를 바쳤다. 이에 석옥 청공은 매우 놀라워하며 거량을 했고, 그의 게송을 상찬하며 깨달음을 인가하고 자신의 의발을 전했다.

'석옥 청공 선사 탑명'에도 "태고 보우라는 제자는 고려인으로 그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교법을 얻었으며, 게송(태고암가)으로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기술돼 있다.

이들 기록은 하모산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이 계승한 임제 선법이 태고 보우에게 이어져 고려로 건너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연이 서려있는 천호암을 양국 불교계가 한국과 중국불교의 구법과 전승, 교류의 역사를 조명하는 성지로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루 조감도.

한국 태고종, 후저우시불교협회
중국 천호암 대웅보전 개광법회
선지식 청공·보우선사 지심 예경
불교 전승 기념처 '법원루' 기공
"韓中불교교류 새 랜드마크 기대"
청공 선사 열반처 만수선사 참배

새로 낙성한 천호암 대웅보전의 불사는 후저우시불교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태고종과의 선린 우호를 이어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이날 한중 불교계는 양국 전통 의식으로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진행하고 대웅보전 낙성을 축하했다. 특히 태고종은 전통 영산작법을 통해 천호암의 발전을 기원하고 석옥 청공, 태고 보우 등 역대 조사들을 예경했다.

이와 함께 양국 불교계는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이하 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천호암 대웅보전 뒤편 부지에 건립되는 '법원루'는 1200㎡ 규모로 조성되며,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전법과 불교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전각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에 법원루 건립 기금 5만 위안(한화 약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양측 불교계는 원활한 불교 교류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고종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승려교육 및 연수, 학술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중 양국 불교의 의미 있는 역사적 도량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법원루의 주춧돌을 시삽하는 의식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이는 임제 선풍을 크게 떨친 석옥 청공 선사에 이어 임제 정책 제19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 무한한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석옥 청공·태고 보우 선사의 법맥과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법원루 주춧돌 기공·시삽식을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절강성불교협회 부회장 자만 스님은 "천호암은 한중 불교교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고찰로 이곳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의 발판을 마련하는 오늘의 행사는 역사적 우정의 계승과 발양"이라며 "'법원루'가 한중 불교계의 우호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 양국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오후 태고종 방중단은 후저우 도량산 만수선사를 참배했다. 만수선사는 석옥 청공 선사가 후학들을 제접하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이곳에서 원적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선사에서 태고종 방중단은 향수해례 의식을 봉행하고 일체 불보살과 역대 선조사들을 예경했다.

"中불교 교류 정례화로 종단 사업 국제화"

인터뷰 |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 보우, 한국불교 종조 확인
후저우시 불교계 교류 물꼬 성과
"12월 중 후속 사업들 논의 시작"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을 조명하겠다는 생각은 태고 문도로서 오래된 생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종조가 태고 보우 국사임을 이번 국제학술대회와 법원루 기공식을 통해 증명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1월 25~28일 이뤄진 방중 행사의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초기부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을 위한 종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취임 초인 2023년 10월 북경 광제사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태고 보우 국사가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받고 임제 선법을 고려로 가지고 온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조가 바로 서야 한다. 바로 태고 보우 국사가 '한국불교 종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진 스님은 "중국 절강성, 후저우시 모두가 태고 보우 국사와 연계된 교류행사에 관심이 많다. '태고보우원증국사비'도 후저우시 당국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오늘(11월 27일) 확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고 보우 국사 선양과 해동 율맥 조명 등 앞으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중국불교계와 연계해 꾸준하게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